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남북 평화통일 기도주일 】

| | |
|------------------|-----------|
| 전 주 | 반주자 |
|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 | |
|----------------|---------------------|-----|
| ♠ 경배의 찬송 | 57. 즐겁게 안식할 날 | 다함께 |
| ♠ 공동기도 | | 다함께 |

자비하신 하나님, 후련하게 내리는 빗줄기에 씻긴 산하가 깨끗합니다. 이불처럼 도시 하늘을 뒤덮은 매연의 띠를 볼 때마다, 그게 마치 우리 삶의 실상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님, 욕심과 허영심으로 흐려진 우리 영혼을 은총의 빗줄기로 말끔히 씻어주십시오. 잃어버린 천진함이 우리의 얼굴에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화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민족인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 산지 6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를 괴물처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화 통일의 꿈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음을 느낍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들이, 우리보다 앞서 평화의 길을 닦고 계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 |
|------------------|-----------------------|--------|
| ♠ 참회의 침묵기도 |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사58:11 | 인도자 |
| ♠ 교 독 문 | 70. 광복절 | 다함께 |
|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
| 대표기도 | I. 광권희 집사 II. 장영숙 전도사 | |
| 응 답 송 | | 성가대 |
| 찬 송 | 233.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 다함께 |
| 성경봉독 | I. 겔37:15-19 | 인도자 |
| | II. 삼하19:16-23 | 박석희 집사 |
| 찬 양 | | 성가대 |
| 말 씬 | I. 둘이 하나가 되리라 | 김기석 목사 |
| | II. 평화는 소명이다 | 김기석 목사 |
| 거둠기도 | | 다함께 |

헌신의 찬송 468.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화의 노래,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평화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겠습니다. 오해와 불신과 슬픔의 땅에 이해와 신뢰와 기쁨의 씨를 심으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의 샘물이 솟구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여름 수련회 보고회 | 에베소서 강해(16) |
| 진행 : 김재흥 목사 | 기도 : 조항범 집사 |

| | | | |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 조관행 집사 조병무 장로 | 인도자 김중수 권사 |

| | | | | | | | |
|-----------|------|-----|-----|-----|-----|-----|-----|
| 8월 | 영접위원 | 한상익 | 김홍기 | 홍순구 | 최숙화 | 이형숙 | 이춘희 |
| | 헌금위원 | 방문성 | 박창운 | 안길상 | 임창선 | 김명순 | 박효선 |

■ 민/음/으/조/워/는/글/

2005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기도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그러진 것들을 바로 펴시고
모든 분열된 것을 일치시키시니 감사합니다.
8월 15일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외세의 폭압에서 해방된 날,
기쁨으로 흘리던 눈물과 커다란 함성이 강물 되어 흐르던 날입니다.
새롭게 열린 역사는 조금씩 흘러서
이제 광복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날에 태어난 아이가 노인이 되어버린 세월이며
강산이 여섯 번 바뀐 긴 세월이지만
우리의 조국은, 우리의 땅은 분단의 굴레를 아직도 벗지 못했습니다.
평양의 거리에서 만난 빨간 목수건을 건 어린이들이나,
서울의 거리에서 만난 모자를 빼뜰게 쓴 어린이들이나
제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걸어가는 모습은 다를 바 없는데
분단의 60년은

그들을 북측의 어린이, 남측의 어린이로 갈라놓았고,
우리도 그것이 자연스럽다 생각했습니다.
분열과 편가름으로는 평화도 정의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지난 60년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만
면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저가 내 동포라, 그가 내 형제자매라 외치며
얼싸안기가 아직도 힘겨운 저희들입니다.

주님,
화합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어색한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의 십자가를 벗고 온 민족이 힘을 합하여 이 땅의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표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그러고 보니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얻은 깨달음입니다.
탄식과 아픔의 60년,
그 세월이 쌓아놓은 철옹성 같은 분단장벽이지만,
지난 5년의 노력,
힘을 모아 평화를 쌓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질 초개와 같을 뿐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함께 살자고, 함께 평화를 세우자고, 함께 통일을 이루자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남과 북이, 북과 남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문화공동체를 이루고, 평화공동체를 이루어서
실질적 통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낮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더욱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 날의 끝에 열싸안고 춤출 남녀노소를,
함성을 드높이며,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와 통일의 기쁨에 취해
은 세상을 향해서 총칼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로 이룬 참된 평화를 증거할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머지않아 이루어질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물쇠 없는 세상

보길도에 가면 모래가 아니라 검은 자갈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 있다. 그 해수욕장 가에서 민박집을 하는 할머니.

바다에 나가 미역 씨앗을 심으며 그 분 댁에서 한 열흘 지낸 적이 있다. 나무로 된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가는 줄(새끼 미역이 간격을 맞춰 뿌리를 내리고 있는)을 바다 속에 이미 설치돼 있는 굵은 밧줄에 감는 일이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산 위에 있는 밭에 가서 밭일을 했다. 시골집이 다 그렇듯 그 집에도 자물쇠가 없었다. 모든 것을 열어두고 살았다.

그런 그 할머니가 도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안 것은 아들이 광주에 나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모든 것을 자물쇠로 잠그고 ‘마치 닭장 속의 닭처럼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이 할머니 눈에는 불쌍해 보였다. 할머니는 돌아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물쇠가 사라지도록 해 주세요. 저 사람들을 자물쇠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감동했다. 이런 기도는 아무나 못한다. 자물쇠 없이 살기는 쉽지 않다. 그것 없이 살자면 가진 것이 정말 없거나 가진 것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혹은 성경에 나오듯이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여겨야 한다. 요즘에는 일반인은 물론 절이나 교회에서도 자물쇠는 물론이고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할머니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가짜로 보일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05년 8월호에 나오는 최성현의 글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 |
|-------|-------------------------------|-------|-----------|-------|-------------------|-------|
| 담임목사 |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 김재홍 | 심방전도사 | : 장영숙 | |
| 원로목사 | : 박정오 | 소속목사 | : 한인철 양재성 | 원로전도사 | : 박옥식 | |
| 원로장로 | : 방희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 | | | | |
| 장 로 |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 | | | | |
| 성가대장 | : 한상익 | 지휘 | : 윤주원 | 반주 |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 |
| 관 리 인 | : 노용래 | 윤전기사 | : 오진훈 | 도서관 | 관 장 |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한인철 조운숙 양재성 임미심 한완식 임정자 이한림 김명희 구명자
 고사일 최영선 김필순 박규석 박경선 박애순 백묘현 김정길 최숙화
 이봉옥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훈동 박정숙 박홍엽 김희진
 박홍재 신윤정 최인환 김남홍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안길상 이형숙 서재홍 박현우 유증희 이재문 정미경
 김승현 김수진 김명순 표명화 김남종 오복순 김창원 정지은 박정석
 고숙이 김미순 송의섭 이희균 김영한 광권희 권혁순 박혜경 임수연
 임원민

감사헌금:

박옥식 장영숙 배삼순 이인섭 김용길 최영혜 김필순 김중수 박혜경
 안종일 정현주 안길상 이형숙 무명1

◇ 속 회 보 고 ◇

| 속 명 | 인 도 자 | 속 장 | 모 인 곳 | 다음 장소 |
|---------|-------|-------|-------|-------|
| 예루살렘 | 유 영 남 | 차 혜 심 | 심 | 심 |
| 베들레헴 | 노 순 옥 | 정 경 례 | | |
| 안 디 옥 | 임 정 자 | 광 권 희 | | |
| 가 나 안 | 문 영 혜 | 박 경 선 | | |
| 갈 린 리 | 조 병 주 | 박 애 순 | | |
| 베 다 니 | 임 창 선 | 박 홍 재 | | |
| 시 온 | 박 효 선 | 허 정 윤 | | |
| 엠 마 오 | 최 숙 화 | 권 미 정 | | |
| 에 베 소 | 이 순 정 | 장 혜 숙 | | |
| 빌 립 보 | 구 성 실 | 박 현 우 | | |
| 가 버 나 움 | 구 명 자 | 안 흥 숙 | | |
| 나 사 렛 | 백 혜 숙 | 정 옥 영 | | |
| 갈 라 디 아 | 송 양 진 | 유 경 순 | | |
| 고 린 도 | 이 영 란 | 이 증 자 | | |
| 다 메 섹 | 박 혜 경 | 최 영 혜 | |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평화통일기도주일** : 오늘은 남북교회가 함께 드리는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입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나오미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오후집회** : 교회학교의 여름 수련회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 **청파 장학식** : 교회에서 봉사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 평생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임고운 이해명 이해인 안훈 최예원 >
5. **세계감리교대회** :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감리교대회'를 위해서 365일 기도운동이 지난 달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스물 다섯 번째 날인 8월 15일(월)이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 **평화교육** : 감리교 평화교육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기독교 평화교육'이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감리교 본부 13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신앙실천** : 마음을 가다듬고 <예레미야 애가>를 정독하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엠마오 속

* 헌화 : 윤미경 윤수진 집사 (아버님 생신)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6:0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